

11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C&중공업 · 우방 워크아웃 신청	C&그룹 계열사 중 워크아웃 대상업체(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C&중공업(008400)과 C&우방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음. C&그룹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C&중공업과 C&우방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음.
10월 경상수지 흑자 '사상최대'	10월 경상수지가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흑자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로 돌아섬. 10월 경상수지는 49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이는 지난 80년 이후 최대 규모.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큰폭으로 줄어들어 흑자를 전환되고 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영향이 작용.
10대 업종, 내년 수출 '흐림'...자동차·철강 마이너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주력업종중 4개 업종의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음. 반도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자동차와 철강, 가전업종은 내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4,568억달러로, 올해 수출 증가율 17.4%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IMF 외환위기나 이전 오일쇼크 당시에도 수출증가는 꾸준히 이뤄졌던 만큼 사상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신보, 건설업체 지원 한도확대...70억→300억	신용보증기금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한도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음.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로,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됨.
미국시장	전일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함, 금일(28일)은 Black Friday를 맞아 시카고 현지시간 기준, 주식시장은 오후 1시, 채권시장은 오후 2시에 조기 폐장함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액 50조원 회복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이틀째 증가세를 유지하며 순자산액은 6일만에 다시 50조원선을 회복. 설정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순자산액은 국내와 해외주식펀드 모두 증가세를 보여 작년 6월말 이후 처음 50조원 아래로 내려섰던 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액은 6일만에 다시 50조원선으로 올라섬

제목	주요 내용
EU 경기체감지수, 23년만에 최저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27개 회원국의 11월 ESI가 전월대비 6.7포인트 하락, 70.5를 기록했다고 27일 발표. 이는 지난 1985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로스타트는 설명.
은행 BIS비율 높여주기 방안 검토	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 부실이 늘면서 은행 BIS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 후순위채 매입, 상환우선주 인수, 공적자금 등등.
EU 리스본 조약 '회생' 기대 고조	지난 6월 아일랜드에서 비준동의 국민투표가 반대 53%로 부결되면서 '가사상태'에 빠진 유럽연합(EU) 리스본 조약의 회생 기대감이 고조. 지난 20일 스웨덴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에서 사실상 리스본 조약 비준이 완료된 상태.
유럽, 11월 PMI지수 5년래 최저	유로존의 소매판매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블룸버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4에서 11월에는 41로 하락. 6개월째 50을 밑돌고 있는 PMI지수는 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